

26년간 농어촌 총각 33쌍 결혼 성사

강원경찰청 기네스북 등재, 독거노인 생필품 전달도 ... “지역사회가 농어촌총각 문제 관심가져야”

농어촌 총각 짝지어주기 앞장 김상철 경위

“어려운 현실에서도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지역의 농어촌 총각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농어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그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26년동안 무려 33쌍의 농어촌총각 결혼을 성사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고성경찰서 현내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상철 경위(54세, 사진).

강원도 횡성군이 고향인 김경위는 1981년 고성경찰서에 첫 발령을 받은 후 30년 동안 고성에서 근무를 하며 농어촌 지역 노총각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큰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

그는 “고성지역에 근무를 하던 중 농어촌 총각들이 결혼문제로 시름에 빠져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들의 인연을 맺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위는 1986년 구성리 장모씨(당시 42세)를 시작으로 매년 미혼남녀 1~2쌍씩 결혼을 성사시켜 왔다. 올해도 명파리 이모씨(38세)를 주선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가 주선한 여성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모두 한국인이며,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

“결혼을 성사시킨 부부 가운데 지금 일산에 사는 한 부부는 매년마다 인사를 오고 있어요. 특히 다년간 애를 갖지 못한 부부가 6년만에 애를 낳았다고 연락왔을 때는 그들 부부 못지않게 내일처럼 너무 기뻐했습니다.”

김경위는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활동이 지역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고성지역과 주민들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농어촌 총각들을 결혼시켜 아이를 낳고 하다보면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농어촌총각 짝지어주기 기록으로 강원지방경찰청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김경위는 이 밖에도 고성군 독거노인 6명에게 매년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

김경위는 “농어촌의 총각들 중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성실하게 고향을 지키며 사는 이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힘든 사회구조가 아쉽다”며 “앞으로도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지속적으



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위는 부인 우정인씨(50세)와 2남을 두고 있으며, 현재 현내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모바일 · 창업과제 3건 수주 강광선 박사(대진 출신)

“연구 더욱 매진 ... 이웃돕기 확대”

현내면 대진 출신 강광선 박사(49세, 사진)가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모바일 디스플레이 과제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창업과제 2개를 잇달아 수주해 화제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모바일 디스플레이과제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모바일 기기(휴대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에 사용되는 멀티



소외된 계층에 전달하는 등 사회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광선 박사는 지난 13일 전화통화에서 “고향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에 더욱 매진할 생각이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변선 전 현내면 이장단협의회회장의 친동생이기도 한 강광선 박사는 대진초등학교(39회), 대진중학교(8회)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농화학과(학사)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물리화학과(석사)와 기계 · 과학공학과(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대구 경일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제25대 고성라이온스클럽 최인선 회장 취임

“어려운 이웃의 빛이 되겠다”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최인선 과장이 제25대 고성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취임했다.

고성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8일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제25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최인선 회장(54세, 사진)은 “선배들이 쌓아온 라이온스의 지역 봉사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클럽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의 사업구상에 대해서 “타 지역 클럽과의 자매 결연 체결을 추진 할 예정이며, 지역 내 봉사 단체와의 연계 추진 및 활동적인 신입회원을 영입해 실질적 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각종 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역에 숨은 일꾼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봉사단체와 연계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죽왕면 구성리 태생으로 동광중 · 농공고를 졸업했으며, 현재 고성군청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은 부인 김인복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박승근 기자

여러분의 제보가 고성을 살립니다

전화 : 681-1666,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